

광장의 ‘관계적 물질성’과 연대의 시민성

— ‘응원봉 시위의 물질들을 중심으로’*

정연보**

| 목차 |

- | | |
|---------------------------|-------------------------------|
| 1. 서론 | 시간성: 민주화운동과 |
|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 페미니즘/퀴어광장 |
| 3. 물질과 정치, 관계적 물질성과
정동 | 5. 응원봉 시위의 관계적 물질성과
연대의 정동 |
| 4. 한국의 기존 시위와 물질들의 | 6. 나가며 |

| 초록 |

집회 현장의 물질들은 단순한 도구나 상징을 넘어 운동의 전략적 기능과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며, 연대의 정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작용한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의 탄핵집회는 ‘응원봉 시위’ 또는 ‘빛의 혁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연구에서는 탄핵집회에서 주목된 응원봉 등의 사물을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중요한 참여자로 본다. 광장은 단순한 물리적 집합 장소가 아니라 시간-공간-물질이 얽혀 생성되는 세계, 물질, 기억 자체이다. 이미 존재하는 빈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응원봉의 흔들림, 빛과 어둠의 만남,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들, 차가운 아스팔트 바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A2A010411). 또한 이 연구는 2023년도 성공회대학교 교내연구활동지원사업에 의한 연구임. 이 논문은 2025년 5월 31일 한국과학기술학회에서 발표한 이후 심층면접과 분석을 추가하고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어준 연구참여분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공회대학교 jeongyb@skhu.ac.kr

닥, 핫팩과 은박담요의 열, 스마트폰과 디지털기술의 연결성, 구호와 음악의 진동, 마주치고 부딪치는 신체들, 민주화운동과 페미니즘/퀴어 광장의 기억, 폭력, 희망 등이 얽힌 관계 속에서 광장은 물질화된다. 광장의 참가자들과 물질들은 미리 존재하는 선형적 주체나 본질적 속성의 실재가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들과의 내부-작용을 통해 저항적 시위와 저항적 주체로 되어 간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주체를 고립된 인간 개체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넘는 관계적 존재론에 기반하여, '관계적 물질성'과 '연대의 시민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혼자서는 불가능한 즐거움, 긴장 속에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함, 서로에게 빛을 지며 돌보고 연결되는 정동의 형성에 주목하면서, 민주주의를 다양한 존재들이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주제어: 응원봉 시위, 관계적 물질성, 연대의 시민성, 정동, 광장

1. 서론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2025년 초까지 한국 사회의 광장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실천들과 목소리들, 물질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응원봉 시위' 또는 '빛의 혁명' 등으로 불린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이하 '탄핵집회')에서는 공연장의 응원 도구였던 '응원봉'이 집회 현장에서 대규모로 등장하며, 기존 촛불의 위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물질적 행위자가 되었다. 케이팝 문화와 함께 성장해온 이 도구는 정치적 현장에서 단순한 빛을 내는 물질적 도구를 넘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연대의 가능성, 감각적 실천을 드러내는 매개체로 주목받았다. 또한 깃발, 핫팩과 간식, 은박담요, 난방버스, 화장실, 쓰레기, 스마트폰 등은 기후변화와 혹한, 바람, 폭설, 일몰 후에도 계속된 시위 현장의 어둠, 인간 몸의 허기와 고단함, 물질성들과 연동하며 광장의 주요 참여자로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응원봉 시위에서 물질들이 어떻게 정치

적 행위자로 작동하는가, 이러한 물질-인간 얽힘은 어떠한 정동과 시민성을 구성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민주주의와 광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제도적·담론적 측면에 집중한 반면, 시민성과 민주주의의 물질적·감각적 층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사물에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그 물질성과 행위성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집회 현장의 물질들은 단순한 도구나 상징을 넘어 운동의 전략적 기능과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응원봉 시위’라는 새로운 형식이 나타난 현재 참여자들의 감각적 경험과 그들을 둘러싼 물질, 인간, 비인간의 관계적 얽힘에 대한 탐구는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응원봉 시위를 통해 ‘관계적 물질성’과 ‘연대의 시민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자한다. ‘관계적 물질성’은 바라드의 관계적 존재론(Barad, 2007)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물질이 고정된 속성이나 제작자의 의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실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바라드는 ‘얽힘들(entanglements)’을 이론화하는데, 얽혀 있다는 것은, 단지 분리된 개별 개체들이 꼬여 있다는 것이 아니다. 개체들은 관계 이전에 미리 존재하는 독립적, 자기-충족적 존재가 아니며, 얽힘 상-관하기(inter-relating)의 일부로서, 관계를 통해 출현한다. 그는 현실의 완벽한 재현을 목표로 한 기존 과학의 방법론에 대한 대안으로, 파동들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간섭 현상인 “회절(diffraction)”의 개념을 통해 새롭게 얽힘 관계성에 주목한다. 응원봉, 깃발, 은박담요, 스마트폰 등의 인공물들도 미리 존재하는 현실의 절대적 재현물이 아니기에 하나의 의미나 도구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얽힘의 관계 속에서 광장을 시위의 현장으로, 집회의 참여자를 새로운 정치적 주제로 회절하며 함께 출현하게 하는 사물들이다. 광장은 단지 어떤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서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물질성과 관계성, 시간성(역사성)을 통해 의미화되고 물질화된다. 특히 응원봉 시위에서의 물질들은 집회 현장에서 참

여자들과의 관계 안에 특정한 정동을 불러일으키며, 개인들을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실천으로 '연대의 시민성' 출현이 가능하게 한다.

이 글은 먼저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관계적 물질성과 정치, 정동에 관한 이론과 사례들을 검토한 뒤, 기존 시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쇠파이프에서 촛불로 상징이 변화한 의미, 페미니즘과 쿠퍼 광장에서의 물질 등을 살피며 중첩된 시간성을 검토한다. 이어 응원봉 시위에서 나타난 다양한 물질담론들이 집회 문화를 어떻게 바꾸거나 지속시켰는지를 보다 미시적으로 보면서, 이 과정에서 형성된 연결과 돌봄의 정동에 기반한 연대의 시민성 실천을 조명한다.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최근 탄핵 광장에 관한 연구가 빠르게 출판되고 있다. 광장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최나현 외, 2025; 이유정 외, 2025; 김유정 외, 2025), 인터뷰에 기반한 단행본 및 논문(이슬기, 2025; 조소연 외, 2025; 최지향 외, 2025; 희주, 일석, 구구, 2025; 강문민서, 송소연, 조용환, 2025), 발언문 분석(유현미 외, 2025) 등이 출판되었고, 시위 현장 이미지, 성명서, 발언, 온라인 글들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아카이브들¹⁾도 구축되고 있다. 광장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들(정원옥 외, 2025; 신진옥 외, 2025; 박지하, 2026 등)도 다수 출판되고 있다. 특히 합창, 구호, 합성 같은 음향 요소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화의 조건을 만들었는지 분석하는 연구

1) 1203아카이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록과정보·문화연구모임), 2024년 12월의 목소리들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2030여성의 시선으로 본 탄핵 광장 (남태령 대첩 아카이빙팀), 20241203 비상계엄 이후 기록 등의 아카이브가 구축되고 있다.

(임태훈, 2025), 몸짓, 말, 소리, 이미지 실천에 주목하는 연구(박상은, 2025)는 몸과 감각적 분석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몸과 물질에 보다 주목한 연구로 홍보람·한우리(2025)의 연구는 광장에서 전개된 물질성과 몸의 정치에 주목하며 인간의 신체가 강력한 저항과 연결의 매체임을 중요하게 분석했다. 이들은 자기책임, 비의존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 “퀴어 마르크스주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판 이론의 분석과 문제의식에 상당히 공명하면서도, 기존 사회과학이론이 물질 분석을 마르크스주의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물질과 인간의 이분법을 넘어 물질의 관계성, 행위성을 보다 강조하는 신유물론과 페미니스트/퀴어 과학기술학의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김환석, 2018; Barad, 2007; 2012; 2023).

이 연구는 위와 같은 광장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물질성을 중심으로 다시 분석하고, 광장 참여자 6인과의 심층면접을 추가로 실행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기존 국내외 시위의 물질문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 사례, 언론보도 자료, 온라인 SNS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들, 필자 자신의 광장 현장 참여 기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심층면접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진행하였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먼저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탄핵찬성집회에 참여한 이들 중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참여 경험을 공유한 여성들을 제외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이후 주변의 소개를 통해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병행했다. 서울 중심이 되지 않도록 지역의 집회나 활동에도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였다. 지역 거주자가 상경하여 참여한 경우, 서울 거주자가 지역에 연대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었다. 5명은 약 2시간 내외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E는 개인사정으로 온라인으로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인터뷰 전후 추가로 메모와 사진, 영상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자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표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연령	참여지역	인터뷰 방식
A	20~30대	서울, 대구, 경북	대면
B	20~30대	서울, 충북	대면
C	20~30대	서울, 광주	대면
D	20~30대	서울, 제주	대면
E	20~30대	서울	온라인
F	40대	부산	대면

모집 과정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취지에 동의하며 참여 의지를 보인 참여자를 면접하였다. 설명서와 동의서를 제공하여 연구참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참여의 동기, 참여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경험과 물질 및 감정, 일상과의 연결성, 페미니즘 관점과의 연결성, 참여 중 겪은 어려움, 제언과 전망 등을 포함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었고, 녹취록 작성 후 키워드 분석을 통해 분류 및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시위현장의 물질성과 정동을 중심으로 인용하였으나, 다른 내용들도 연관된 경우 포함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인터뷰 내용은 익명으로 기록하였다.

3. 물질과 정치, 관계적 물질성과 정동

최근 사회과학에서는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이 강조되며, 신유물론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 사물, 몸 등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이 조명되고 있다. 신유물론은 물질성을 관계적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인간과 비인간, 언어와 물질의 이분법을 넘는 관점으로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라투르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 이하 ANT)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그로 인한 정치적 효과를 고찰하는데, 사물이 단순한 도구나 수동적 배경이 아닌 행위성을 지닌 핵심 구성요소라는 점과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관계망을 강조한다(Latour, 2005).

신유물론과 페미니스트/퀴어 과학기술학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바라드(Barad, 2007)도 비인간 물질의 행위성을 주목하지만, ANT와 달리 개체, 실체로서 사물이 선형적으로 존재하여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구분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존재가 함께 생성되는 과정으로 “내부 작용(intra-action)”을 강조한다. 즉 이미 존재하는 독립된 행위자들이 모이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양자 얽힘처럼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는 관계적 존재이며, 물질 자체가 의미와 행위성을 응축한다. 바라드는 “공간시간물질화(spacetime mattering)”(Barad, 2023: 27)의 개념을 통해, 기억은 단지 인간 정신의 주관적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정신’은 세계의 시공간-물질화의 일부임을 드러낸다.

기억은 개별적 뇌 주름 속에 남아있지 않는다. 오히려 기억은 우주에 새겨진 시공간-물질의 접힘(enfoldings)이며, 더 정확히 말해, 그 물질화 속에서 우주가 스스로를 접어 표현하는 방식이다(.....) 기억하기(re-membering)는 일련의 순간들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보다 더 큰 과거와 미래를 생동하게 하고 재배치하는 것이다(Barad 2007, ix).

즉 기억은 “세계짓기(worlding)”의 과정에 새겨져 있으며, 세계의 반복적 재-구성들/재-구성하기들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Barad, 2023: 28). 이렇게 보면 광장은 이미 존재하는 독립된 행위자들이 모이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출현한다.

이는 기존에 인간과 언어, 문화로만 해석해왔던 정치적 행위와 사회운동 참여의 감각적 측면을 조명하는 데 유용하며, 언어와 물질의 이분법을

넘어 정치적 주체가 되어가는 관계 속의 수행성(performativity)과 물질-담론적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시위참여자들은 광장에 참여하면서 응원봉과 소리, 깃발 등 다양한 물질 참여자들과 광장에 “휘말림”으로써(서보경, 2023)²⁾ 참가 전 가지고 있던 의도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기보다는 회절하여 새로운 관계와 의미가 형성되는 힘으로 읽을 수 있다.

다른 이론적 자원으로 정동(affect) 이론은 감정을 개인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몸, 물질,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본다. 마수미에게 정동은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작용하고, 지각하고, 생각하도록 새로운 변이를 표현하려고 요동치는” 힘으로 몸과 세계가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직 언어로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 잠재적인 흐름을 의미한다(마수미, 2018: 8). 아메드는 감정이 특정한 신체나 사물을 향하게 하는 방향성과 정치적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한다(아메드, 2023: 444). 이 연구들은 주체의 인지 과정을 우월하게 여긴 기존의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이성/감정의 이분법을 넘어, 몸과 사물, 감각이 경험하는 관계 속의 정동과 감정에 주목한다. 한국에서도 정동 이론은 정치·사회 현상의 새로운 미시적 접근 틀로 활용되고 있는데, 권명아(2016)는 “여자 떼”와 소수자 등 “다스릴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역사적 공포 등을 정동이론으로 고찰하였고, 소영현(2022)은 응원봉 이전의 광장과 젠더를 정동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동은 정치적 집합이 이루어지는 감각적 기반이며, 특히 시위와 같이 다중의 몸들이 모인 공간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이처럼 신유물론과 정동이론 등은 언어로만 포착되지 않는 몸과 물질

2) 서보경(2023)은 바이러스 등 비인간과 인간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에서 행위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능동(감염시키다)과 피동(감염되다)의 이분법을 넘어 중동태로서 ‘휘말리다’를 사용한다. 본 연구자도 “행하면서 당하는 일”(서보경, 2023: 349)로서 ‘휘말리다’가 시위 참여자들과 사물들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으로 분리된 사건이 아닌 광장에서 영향을 입고 말려들어가는 과정을 포착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시민성과 민주주의를 연구함에 있어 물질과 감각, 정동의 역할을 재평가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전통적 시민성 이론은 시민을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율적 개인으로 상정해왔다(Marshall, 1950; Rawls, 1971). 또한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행위와 의사소통을 시민성의 핵심으로 보는 논의도 제시되었다(Arendt, 1958; Habermas, 1989). 이러한 접근은 인간 행위자, 제도, 구조, 언어가 중심이었으나, 바라드의 접근과 정동이론은 사물, 기술 등 비인간 물질들과 몸, 감정과 감각 등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론에 기반하여 독립된 자율성을 전제로 하거나, 공적 행위에 참여하는 인간 주체를 중심에 두는 자유주의적 시민성을 넘어, 인간-비인간 물질들이 얽힌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동적, 물질적 실천의 효과로서 ‘연대의 시민성’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사물에 주목한 구체적 연구사례로, 콜먼(Coleman, 2019)은 쿼어축제에서 종종 사용되는 반짝이는 물질(glitter)이 단지 시각적 장식이 아닌, 정동을 생산하고 관계를 조직하는 정치적 매개체로 작동한다고 분석한다. 반짝이 가루 입자들은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존재로, 끈적이고 남는다는 물질의 특성이 기억, 정서, 감각의 지속성을 표현한다. 이는 종종 여성적, 쿼어한, 축제적인 정체성과 연결되는데, 빛나고 눈에 띈다는 특성은 소수자성과 연결되며 비가시화되었던 존재성 혹은 집단의 가시화를 위한 전략으로 작용하고, 반짝이는 물질은 유쾌한 감정, 기쁨, 놀이를 통한 저항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분노나 결기로 묘사되어온 시위 문화의 정동을 변형시킨다. 또한 정리하기 어렵고 흩어지는 반짝이 가루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생동하는 물질”(vibrant matter)로(Bennet, 2010), 축제 현장을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경계의 흐트러짐, 물질의 통제불가능성과 정체성의 혼성성을 가시화한다.

민주주의적 저항운동뿐 아니라 지배권력의 동원 정치에서도 정동적 물질성이 작동한다. 로겐호퍼와 다실바(Rogenhofer & da Silva, 2023)는 논쟁적 정치를 이해하려면 아이디어, 텍스트, 기회 구조 뿐아니라, 사회적·정

치적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물들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군용 차량과 대중 집회, 체육 행사 등에서 사용된 'Z' 문양이 국가주의, 전쟁의 정당화, 정서적 결속을 조직하는 물질적 매개체로 작동한 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이는 물질이 정치적 갈등 속에서 핵심적인 정동적 행위자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푸시햇(pussyhat)' 니트모자 시위 역시 일상적 물질과 감각이 정치적 저항과 연결되는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2017년 1월 워싱턴 여성 행진(Women's March)에서는 대선과정 내내 여성혐오 시각을 노출한 트럼프의 발언에 반대하여, 참여자들이 분홍색 '푸시햇' 니트 모자를 쓰고 행진했다. 다수의 참가자들은 이 모자를 트럼프 반대의 상징, 여성의 강인함, 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했다. 니트 모자는 집단적 뜨개질이라는 행위를 통해 비가시화된 손노동, 돌봄노동을 가시화하며, 신체를 감싸고, 여성 혐오에 대한 저항, 감각적·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정치적 주체성을 물질화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푸시햇이 잠재적인 인종주의와 트랜스젠더 배제를 내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Malcom et. al, 2020).

이외에도 잘 알려진 홍콩의 우산시위에서는 우산이 비를 막는 일상적 개인적 물건에서, 경찰의 최루탄과 폭력을 막으며, 동시에 카메라 채증을 통한 신분 노출을 방해하는 공동체의 방패이자 시위의 상징이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시위에서 등장한 냄비는 시끄러운 금속음을 통해 혼란 요리 도구에서 정치적 저항의 매개가 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원래 노동 안전을 위한 장비였던 형광조끼가 비가시화된 이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정치적 가시성의 장치로 변했다(Esmoris and Ohanian, 2022). 냄비의 소리는 주의를 끌고, 노란 우산의 색과 형광 조끼는 시각적 연대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감각적 자극은 정동 정치의 차원에서 작동했다(위의 글).

이와 같이 일상적인 물질들이 정치적 수행의 관계들에 얽히면서 특정한 연대감 또는 배제를 낳기도 한다. 광장의 참가자들과 물질들은 미리 존

재하는 선형적 주체나 본질적 속성의 실재가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들과의 내부-작용(Barad, 2007)을 통해 정치적 주체와 물질적 실재로 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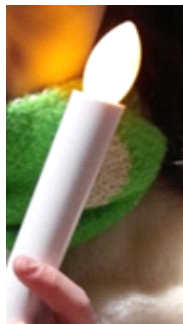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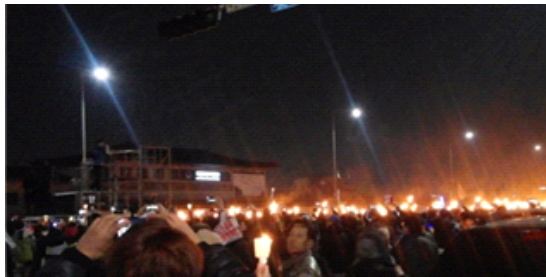
4. 한국의 기존 시위와 물질들의 시간성: 민주화운동과 페미니즘/퀴어광장

김은성(2022)은 한국 사회운동의 물질문화를 분석하면서, 시위대가 사용하는 인공물의 상징적 의미와 감각적 경험을 다루었다. 그에 따르면, 집회 현장에서 쇠파이프, 화염병, 최루탄, 촛불, 차벽 등의 시위 인공물은 서로 다른 물질정치를 행한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집회에서 주로 나타났던 쇠파이프는 촛불보다 위계적이며 남성중심적인 시위 문화를 만들었지만, 촛불과 같은 새로운 시위 인공물의 등장은 새로운 시위의 양상으로 이어졌다. 촛불을 든 시위 참여자는 뛰기도, 폭력을 행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위 인공물은 시위 참여자의 행위를 제약하며, 인간들의 감각적 상호작용을 통해 권력이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즉, 감각은 몸 뿐만아니라 사물을 매개로 실천되며, 새로운 인공물의 출현은 감각 권력을 변화시킨다(김은성, 2022).

쇠파이프로 상징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군사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이었음(Kwon, 2005)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성들은 언제나 광장에,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에 있었으나 비가시화되었다. 시위 참여 여성들은 돌을 찾아 전달하기도 하고 다친 학생들을 치료하기도 했으며,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1987년 투쟁에서 “보물찾기”처럼 돌을 찾아다녔던 행동조 이경란은 인터뷰에서, “전경들이 최루탄을 쏘거나 백골단들이 덮칠 때 일단 돌을 던지면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깐”, 돌은 “우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초등학교때 소풍가서 찾던 “보

물”만큼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한다(하현중, 2018). 간호대생을 비롯
한 많은 여성들은 다른 시민들이 다친 경우 치료와 돌봄, 이송 등을 도와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물론 여성들이 돌봄의 역할에 머무르기만 한 것
은 아니며 여성들 역시 전투조로 활동하고 최루탄에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위의 글). 또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여성들은 삼베수
건을 쓰거나, 전경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주며 최루탄 추방운동을 벌이는
등 쇠파이프 외의 다양한 물질들이 1980년대 광장에도 등장하였다. 쇠파
이프로만 민주화 시위를 기억할 때에는 돌봄이나 다른 물질들과의 얽힘으
로 이루어진 시위참여형식들은 비가시화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³⁾

〈그림 1〉 2016년 탄핵집회의 촛불과 종이컵 (필자 촬영)



〈그림 2〉
2016년 탄핵집회에서
사용된 LED 촛불
(필자 촬영)

3) 민주화운동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기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참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촛불집회는 민주화 이후 평화집회를 주도한 시민운동의 대표적 사례로서 주목받아 왔다.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의 사망에 대한 촛불시위로부터 시작하여,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시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집회, 2016-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요구 집회 등에서 촛불이 중요한 시위의 상징으로 나타났다. 촛불의 빛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상징적·물질적 행위자로, 빛의 파동이 성찰적이며 공동체적인 정동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촛농이 떨어지지 않게 종이컵을 받친 초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만들었다(김은성, 2022). 당시 중학생, 유모차를 끈 여성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청소년과 여성이라는 새로운 정치 주체를 ‘발견했다’는 평가들이 이어졌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광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김영옥(2009)은 2008년 촛불집회가 다양한 여성들의 주도적 역할 아래 진행되었고, 기존의 운동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며, 생활정치와 생명정치의 연관성을 밝혔던 점을 분석했다. 또한 촛불집회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의례(ritual)와 참여자들의 퍼포먼스(performance)를 강조한 분석(한우리, 허철, 2010)은 참여자들이 복잡한 정치적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에 중요하게 주목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서도 촛불집회가 이어졌는데,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는 한 정치인의 발언은 촛불과 바람의 상호작용과 취약성을 정치적 유약함, ‘민심의 변덕스러움’으로 비유하면서 촛불집회의 민주주의적 요구들도 쉽게 사라질 수 있는 목소리로 폄하하려 했다. 이에 분노한 시위현장에서는 커다란 햇불이 등장하기도 했고, 바람에 꺼지지 않는 LED 촛불도 등장했다(그림 2). 이러한 LED 촛불은 다양한 색은 아니었지만 휴대성이 개선된 촛불로 응원봉과 연관된다. 또한 2016년 대학가 첫 시국선언을 시작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투쟁가로 불렀으며, 이것이 2024년 탄핵집회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촛불집회에서 배제와 소외의 비가시화 문제도 있었다. 집회의 평화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집회에 여전히 남아있던 혐오와 차별, 폭력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를 겪어야 했던 소수자들의 자리”와 “광장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의 존재”를 지울 수 있었다(소영현, 2022: 406).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서 광장 참여를 이끈 정동의 하나가 여성 혐오였음을 분석한 연구는(소영현, 2022; 장은애, 2023) 이러한 배제의 정치학이 사소한 과제가 아님을 상기시킨다.

한편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시민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이기 시작한 포스트잇 추모 메모 현상은 여성들과 시민들이 쓴 메시지가 물리적으로 붙고 겹치며, 일상적 도시 공간에 의미변화를 만들었다. 포스트잇은 텍스트와 물질이 결합한 비인간 행위자로서, 분노, 슬픔, 공감과 연대의 사회적 감정을 매개하고 재조직했다. 강남역 출구는 애도의 장소, 분노의 장소, 여성 연대의 장소로 재기호화되며, 그 공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읽거나 붙이고, 추모의 메모와 꽃을 남기며 이 정치적 정동의 일부가 되었다. 사무용품으로 분류되는 포스트잇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물질은 애도와 공감의 관계 속에서 공간을 중요하게 재구성하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7)로 불리는 다양한 페미니즘 논의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하던 당시, 자유롭게 붙였다 떼어낼 수 있는 포스트잇의 물성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익숙한 해시태그를 떠올리며 접속과 만남, 연대를 상징하기도 했다. 해시태그는 우연적이고 창발적인 다양한 엮임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후 다룰 응원봉 시위의 온라인 연결성으로도 이어진다. 또한 2016-19년 낙태죄 반대를 위한 ‘검은 시위’에서의 검은색 옷, 모자, 장갑, 2018년 혜화역의 불법촬영편파수사 규탄 시위에서의 붉은 옷, 양산, 모자 등은 여성들의 애도, 분노, 저항 등을 표현하였고 신분 노출의 위협에 대한 보호라는 의미도 있었다. 이번 탄핵 광장에서 많이 등장한 무지개 깃발과 케이팝, 응원봉은 퀴어문화축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노하우가 현재의 광장으로 이어져왔으나 중

종 삭제되어왔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희주, 일석, 구구, 2025: 249).

이와 같이 다양한 광장에서 사용된 물질들은 단순한 소품을 넘어 시민성과 정치적 실천을 구성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민주화 운동, 페미니즘, 퀴어 광장의 역사성 속에서 바라볼 때 응원봉 시위에서 나타난 물질과 정동들이 단지 새롭거나 단일한 기원을 가졌다기보다는 “두꺼운 현재(thick now)”(Barad, 2023: 27)로서 과거의 억압, 저항이 현재에 겹쳐지고 기억이 물질적으로 다시 구성되는 장임을 이해할 수 있다. 선형적 시간성에 도전하는 바라드의 관점에서 응원봉 광장은 국가 폭력의 기억, 민주화의 경험, 억압의 잔재,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 등을 포함하며, 현재에만 속해있지 않다. 즉 이미 지나간 시간들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이 겹쳐지는 장소로서 광장을 사유할 필요가 있다.

5. 응원봉 시위의 관계적 물질성과 연대의 정동

1) 응원봉의 가시성과 다양성

2024~2025 탄핵집회에서 중요하게 등장한 인공물인 응원봉은 아이돌 팬덤의 물품으로만 여겨졌던 사물이 어떻게 정치적 장에 얽히며, 다른 상징과 정동의 결합체로 작동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과 소수자들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시위 및 사회변화의 핵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지만, 역사적으로 그 기여가 종종 지워졌다. 응원봉은 팬덤과의 역사적 얽힘 속에 드러나기에 비가시화되었던 여성 참여자들을 조명하고, 촛불의 성찰성과 다소 다른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다양성, 즐거움, 축제성과 접속한다. LED 불빛은 높은 광량으로 멀리서도 식별되며, 동시에 다수의 응원봉이 흔들리면 시각적 파급효과가 크다.

빛은 응원봉 자체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빛의 입자와 파동, 배터리의

전기, 광장의 어둠, 가로등과 빌딩의 조명과 반사, 다른 응원봉이나 인공 물의 움직임, 인간참여자들의 망막세포와 시신경, 참여자 군중들의 몸의 움직임 등과 얽히면서 출현한다. 주로 겨울에 진행된 집회의 특성상 일몰 시간이 빨랐는데, 어둠이 내리면 많은 경우 두려움, 공포가 더 강해질 수 있지만, 어둠은 응원봉의 빛과 내부 작용하여 오히려 빛의 소중함을 더욱 중요하게 부각하였다. 실제로 응원봉이 등장한 시위에서는 종종 저녁 무렵부터 행진하면서 춤추고 축제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춤과 노래, 공연과 응원봉이 어우러진 흥의 정동은 위계적인 시위 문화를 바꾸며 참여의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응원봉에 더해 집단적 구호와 케이팝 노래는 성대, 호흡, 물리적 진동으로 신체와 결합하고, 주변 사람과 스피커의 울림이 공동의 울림으로 퍼지면서 연대의 정동을 형성하였다(임태훈, 2025).

응원봉은 빛이라는 측면에서는 촛불과 유사하지만 촛불보다 안정적이다. 응원봉은 “그립감이 좋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높이 들기에 적합”한 것으로 언급된다(이유진, 2024). 바람이나 비와 같은 외부 환경에서도 꺼지지 않으며, 광량을 조절할 수 있고, 다채로운 색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촛불’보다 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응원봉과 참여자들이 모인 광장은 다양한 말할 수 없는 목소리와 고민을 응축한 기억의 물질화이다. ‘탄핵’ 등 다양한 문구나 이미지를 더하여 꾸미는(‘봉꾸’) 등 다양한 응원봉을 만드는 문화가 있었고, 직접 새로 제작하기도 하며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는 게임매니아로 게임의 모티프를 활용하여 한지와 전구 등을 이용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응원봉을 만든 경우도 있고(그림 4), 좋아하는 드라마의 굿즈를 사용하거나, 소속된 단체에서 자체 제작한 응원봉, 야구팬으로서 야구응원배트를 가지고 나간 경우 등 다양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집회 초기에 들고 나가던 응원봉이 작은 배터리를 너무 자주 갈아야 해서,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손전등과 좋아하는 배우가 그려진 종이컵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응원봉을 만들어 가져가기도 했다. 또한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친구의 것을 빌리기도 하고, 기존 행사에서 받은 야광 팔찌 등 빛을 내는 무엇이든 가져가거나, 자신의 주먹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응원봉은 내가 즐기는 어떤 것, 나를 표현하는 것으로 다양한 변주가 가능했고, 다양한 정체성을 담고 있었으며, 투쟁하는 주먹의 연장이기도 하며, 일상에서 표현하지 못한 억눌린 어떤 것을 드러내는 매개이기도 했다.

〈그림 3〉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응원봉
(연구참여자 제공)



〈그림 4〉
자체 제작 햇불 응원봉
(한지 안의 전구로 불을 밝힐 수
있음. 연구참여자 제공)

나는 이것 좋아하면서 동시에 이런 신념을 드러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것 (중략) 내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있을 수 있다 라는 그 만족감? 그래도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낀다는 표시, 존재감을 드러내면

서 다닐 수 있다는 행복감 같은 것. 왜냐하면 저는 고향에서 존재감을, 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다녔으니까 거의 뭐 어느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다녔는데... 거기서는 OO 좋아하는 것도 얘기하기 힘들었어요. 덕질은 그냥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성소수자라던가 퀴어라던가 이런 정치적 성향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해받기 어려웠고요(참여자 A).

이와 같이 팬덤 활동은 소수자성이나 정치적 성향과 다른 층위로 종종 생각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이나 가치 지향을 숨겨야 했던 검열을 뚫고 나온 표현이라는 점에서 집회 현장에서 엿히게 된다. 이는 광장에서의 사물이 그 자체의 특성이 아닌 관계 속의 수행의 결과로 의미화됨을 보여준다. 원래 공연장에서 특정 아이돌 그룹을 응원하도록 고안되었더라도, 응원봉은 거리에서 팬덤이라는 단일한 의미를 넘어 회절된다.

광장과 거리는 평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장소이기에 신체를 거기에 두는 것 자체로 '불법'을 감수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응원봉을 함께 들고 나온 이들과 연대감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이 해방감과 안도감이라는 정동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이는 선형적 특성이 아니라, 사물과 몸들이 함께 있음으로서 새롭게 의미화·물질화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광장에서 민주주의, 저항, 연대, 소수자성의 고민과 몸, 사물들이 내부 작용한다.⁴⁾

참여자들은 아끼던 응원봉 또는 소중한 무엇을 꺼내 광장으로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한 물질적 재활용을 넘어 감정적 엿힘, 기억의

4) 잘 알려진 과학기술학연구 중 전화기는 초기에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업무 통신 도구로 인식되었으나, 가정에서의 여성 사용자들이 이를 사회적 네트워킹과 교류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전화의 사회적 의미가 재정의되었다. 벨 전화회사는 초기에 “사소한 수단”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며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수많은 여성 사용자들은 결국 전화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접근 방식을 변경하도록 압박했으며, 그 결과 전화의 사회적 영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Martin, 1991). 이는 인공물의 초기 설계의도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새롭게 구성한 주요 사례이다.

물질화를 보여준다. “나의 최애”를 포함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광장에 섰다는 이들(희주, 일석, 구구, 2025)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좋은 세상’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드러내기도 하고, 응원봉을 통해 그간 말하지 못했던 나의 목소리나 고민들을 드러내고자 하기도 한다. 응원봉은 단지 빛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 소외감, 말하지 못한 의미들, 애착이 중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다. 즉 응원봉 시위는 각각의 다른 색과 모양보다 더 많은 다중적 위치들을 보여준다.

응원봉의 전용은 바라드(Barad, 2007)가 말한 관계적 얽힘을 상기시킨다. 사물은 본래 목적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맥락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재구성하며 정치적 효과를 생산한다. 응원봉은 공연장과 시위현장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장을 가로지르며, 정체성의 분할선과 경계를 흐린다. 이 흐려짐은, 젠더, 연령, 성적체성, 계급 등에서 고정된 정치적 주체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2030 아이돌 팬 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소비될 수 없는 다양한 참여자들⁵⁾은 다양한 의제와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응원봉과 정치라는 기존에 겹치지 않는 정체성이라 보였던 조합을 통해 이 다중적 정체성들을 드러내려 하지만 단순화된 미디어의 프레임들에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기도 했다. 기존의 시위에서 ‘유모차 부대’로 불린 여성참여자가 모성적 정체성으로, ‘춧불소녀’가 교복을 입은 학생의 정체성으로 고정되어 재현되었던 것처럼,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 아이돌 팬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으로만 재현될 수 있었다. 실제로 초기에는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놀러나간다’라는 식의 폼하, K-팝과 응원봉이 ‘탈정치화’한다는 우려와 같은 문화/정치 이분법, 팬덤 여성의 고정 이미지가 작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은 이러한 이분법과 고정관념과 다르다. 이에 대해 한 참여자는 “아이돌 응원봉 들고 왜 비장

5)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응원봉들이 시위 현장 매대에도 등장했고, 다양한 연령과 젠더의 참여자들도 이를 구입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하면 안 되나요?”라고 적절하게 되물으며, “시위 동기가 사소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의 모든 여성이 사실 대의를 위해 시위 현장에 나가고 있다”⁶⁾고 적었다. 이는 사소함과 비장함에 대한 쉬운 이분법적 가정과 젠더화된 편견에 도전한다.

과거의 시위가 때로는 ‘활동가’ 중심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면, 응원봉의 빛과 케이팝의 개사를 통한 메시지가 만드는 축제적인 성격은 집회참여경험이 없는 이들과 청소년, 소수자 등 그간 주변화되었던 주체들을 끌어들이는 접촉면을 제공했다. 참여자 F는 기존시위에서 느꼈던 “군사주의적 문화가 없어져서 좋았다”고 언급하며, 시위문화의 변화에 대해 기대를 표현했다. “분노를 흥에 녹이면 오히려 더 오래 화낼 힘이 생긴다”(오세연, 2025: 109)는 한 참여자의 이야기는 저항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축제성과 결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응원봉은 감정의 장벽을 낮추고, 정동적 접근성을 높이며, ‘참여하고 싶은 광장’을 구성하는 행위자가 된다.

이와 함께 팬덤이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역할들을 해온 점도 조명되었다(김주미, 2025; 조소연 외, 2025; 김세원, 2024 등).⁷⁾ 팬들은 소속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적극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던 경험부터 민주화시위, 성소수자, 환경,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제기 등 더 넓은 시민적 행동으로 연결되어왔다. 팬덤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 플랫폼은 뉴스보다 빠르게 집회 소식이나 긴급한 사회 이슈를 접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다.

6) 차차@k1kuv, 의X(구 트위터)(작성일: 2024. 12. 8.) <https://share.google/axNGEyZ6DliYHW4eH> (검색일: 2025. 2. 28).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즐거움이 운동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7) SNS를 활용한 팬덤과 시위의 교류는 2008 촛불시위,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국면에서도 사용되었으나,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며 응원봉이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한 2024년의 집회는 이를 보다 전면화하고 있다.

케이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사회문제 이슈에 다가가기도 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통로였어요. 보통 케이팝이나 다른 콘텐츠의 팬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트위터(현 지에 넘어가는데, 트위터에서는 딱 케이팝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문제 이슈들도 많이 넘어 들어오게 되니까. 오히려 뉴스에서 보다 트위터에서 '오늘 이런 집회가 있고, 이런 이슈들이 지금 문제이다' 하는 걸 좀 빨리 알 수 있었어요. 덕질을 하는 플랫폼에서 바로 또 사회문제 이슈들도 바로바로 전달을 받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요. 케이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페미니즘 관련해서 어떤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 어디까지 '여성'이고, 아이돌의 남성성, 여성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문제들도 케이팝에서 아이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제가 팬으로서 보게 되면서 이런 문제는 난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면서 좀 더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D).

회절적 시각으로 읽는다면, 겉보기에는 쉽게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사물과 담론과 사람들, 여기에서는 인터넷, 정치적 논쟁, 응원봉, 팬덤 활동 등이 유발하는 다양한 얽힘들이 드러나며, 응원봉이 광장에서 빛나고 흔들리며 음악, 구호 속에 맞추어지면서 참여자들의 몸들과 함께 저항적 행위가 되고, 여러 사물과 관계 속에서 광장은 이들을 아우른다.

하지만 탄핵광장에서 응원봉 사용과 상징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도 없지 않았다. 한 탄핵 촉구 집회 홍보물에서 응원봉 이미지를 사용하였는데,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에서 이를 업로드한 일에 대해 퀴어 커뮤니티가 응원봉을 전유했다며 팬덤 간 논란이 가열되었던 일도 있었다(희주, 일석, 구구, 2025). 하지만 또한 광장에는 많은 퀴어 커뮤니티가 참여했고, 응원봉을 하나의 의미만으로 환원할 수 없으며,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한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우리 아이들한테 퀴어 묻히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다가, 또 본인이 퀴어면서 아이돌 팬이면서 광장에 나오는 팬들이, 그냥 내가 들고 나가는데 이게 왜 묻히는 거냐, 야 너네 팬덤 안에 퀴어가 없을 것 같냐, 퀴어 여기 있다, 내가 퀴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참여자 C).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소수자성을 집회 참여의 동기 중 하나로 중요하게 이야기하였다. 장애당사자로서, 퀴어로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과로하는 노동자로서, 젠더 갈라치기 정치 혹은 여성 혐오 정치에 분노한 여성으로서, 다른 소수자의 형제나 친구로서 생각했던 고민들과 그간의 답답함으로 광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장에서는 다양한 소수자가 자신의 '취약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발언하였고 이를 경청하는 문화가 있었다(박지하, 2026). 응원봉의 빛들은 하나로 단순화할 수 없는 다양한 고민들을 담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광장에 휘말리면서 점점 더 자신의 억압된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이를 열망하게 된다.

저는 탄핵 광장에서 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있었던 게 좋은 거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었으면, 그런 자신의 말을, 발언을 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장소라던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필요해요(참여자 A).

참여자들은 소수자들의 발언에 경청하고 호응해 주었던 경험을 인상 깊게 말하며, 안전한 공간의 실험으로 광장을 사유하였다. 이는 인간참여자들만이 아니라 응원봉 등의 사물들과 함께 만든 정동 속에 형성되었다. 참여자 C는 응원봉 시위가 새로움과 스펙터클로 소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응원봉의 다양성이 “저렇게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다 너를 싫어해 그걸 보여줬다에 그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단지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응원봉의 다양성 안에는 그간 말하지 못했던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충분히 언어화되지 않은 변화의 열망들도 담겨있음을 말해준다. 탄핵 이후 지금까지도 ‘빛의 혁명’이라는 상찬의 말들 속에 어떤 의제들이 선별되고 주변화되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응원봉의 정동은 빛과 케이팝음악을 넘

어 오래된 차별과 배제에 대한 깊은 상처, 분노, 변화의 열망, 그리고 이를 말하고 경청하는 연대의 정동이 얽힌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경청의 공간이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깃발의 이동성과 수고로움

다양한 깃발들은 응원봉이 다 말하지 못한 의제들을 문구나 그림으로 드러내며, 응원봉, 음악, 시위현장의 빛과 바람과 함께 어우러졌다. 기존의 운동조직들의 깃발도 있었지만 이번 광장에는 특정 단체가 아닌 다양한 깃발들이 등장했는데, “주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 모임” “(내향인)” “집회 오느라 집이 난장판 된 1인 가구 모임”, “전국과체중고양이연합” 등 다양한 존재와 의제를 포함한 메시지들이 풍자적으로 표출되었다.⁸⁾ 깃발의 문구들은 현실의 반영을 넘어 회절적인 공감과 의미를 확산했다. 신속함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주변화된 가치들을 떠올리게도 하고, 노동, 돌봄, 소수자들, 비인간 동물 등의 소외된 이슈와 주체를 가시화하고 공감을 부르며, 시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제가 탄핵만은 아님을 시사하였다.

또한 체격이 큰 몸뿐 아니라 작은 체구의 여성들을 포함한 다양한 몸들이 때로는 자신의 몸보다 큰 깃발을 흔드는 모습은 물질-몸-환경의 내부작용을 잘 보여주었다. 응원봉의 휴대성과 달리 깃발은 번거로운 수고로움을 동반한다.

8) 깃발들의 아카이빙 사이트는 <https://flaaags.com/>를 참고할 수 있음.

〈그림 5〉 깃발과 응원봉 (필자 촬영)



저도 깃발을 제작해서 휘두르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디자인, 발주, 배송, 깃대 및 기타 제품 주문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매 시위마다 그것을 챙겨 들고와 휘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보관하기에는 가족에게 들킬 위험이 있고, 들고다니기에는 번거롭고, 매번 휘두르기에는 체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깃발은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듭니다. 친구가 깃발을 챙기는 모습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깃발을 맡아주거나, 친구가 주문한 깃발 스티커를 배달 해주거나, 잠시 깃발을 흔든 경험이 있는데, 깃발의 물질성과 정동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깃발이 주는 정동은 이러한 물질성과 수고에서 탄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참여자 A).

깃발은 주문제작을 해야 하고, 매번 무거운 짐으로 이동의 제한을 낳는다. 따라서 높은 가시성에도 불구하고 깃발 흔들기라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깃발의 정동은 바람, 기수의 몸과의 내부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때로는 바람이 협조적이지 않기도 하고, 깃발들 사이에 흔들리는 박자가 서로 맞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잘 못 하면 부딪힐 수도 있다. 참여자들은 깃발의 가시성이 높아 서로 흐름을 잘 맞추는 일이 집회의 질서가

잡히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바람이 많이 불어 깃발들이 휘날릴 때 그리고 배경음악이 잘 어우러질 때 정동이 고조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응원봉보다 휴대와 보관이 어렵고, 제작의 부담도 있는 깃발은 기수 혼자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노고와 물질, 과정들이 응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깃발이 혼자 존재할 때보다 다른 깃발과 사람들 사이의 협력에서, 집회공간과 바람, 응원봉, 음악 등과의 얽힘 속에서 연대의 정동을 만들 수 있다.

한 기수는 “어느 순간, 깃발이 곧 ‘나’이고 내가 ‘깃발’이라고 느꼈다”(‘내향인’ 기수 인터뷰, 이슬기, 2025:89)고 말한다. 탄핵집회 이후에도 다양한 집회현장에 나가고 있는 연구참여자 B는 최근 깃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개인 깃발이 점점 더 커지면서 단체 깃발들은 그보다 더 커야한다며 경쟁적으로 깃발의 크기가 커져 최근 3미터짜리 깃발도 등장하고도 있다고 전했다. 깃발이 커지면서 가시성은 높아지지만, 그에 따르면 깃발을 드는 사람은 깃발을 뺏기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잘 뛰어어야하고, 체력과 몸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 긴장이 고조되는 광장에서 깃발을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과 깃발이 낯선 물건에서 점점 더 익숙하고 내 몸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그의 이야기는, 깃발, 조직정체성, 자기정체성, 몸이 광장에서 얽힘을 보여준다. 깃발이 몸과 물리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깃발에 담은 자신의 정체성과 수고로움이 얽혀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현장에서 느슨해진다. 이와 같이 현장의 정동은 언어와 담론만이 아니라 물질적 장치의 행위성과의 얽힘에서 형성된다.

또한 깃발은 다양한 목소리들의 가시화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함께함과 연결의 감각을 만든다.

깃발들과,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아 이 단체들도 이 의제에 함께하고 있구나. *대 OO위원회도 항상 여기에 오네 하면서 내가 어느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였던 거 같아요(참여자 D).

전국 응원봉 연대의 계정주이자 기수는 '전국 깃발 여행'을 제안해 대전 집회에 다녀오고 광장 스티커를 발송하는 프로젝트도 기획했다. 그는 “유명한 깃발이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상징성”(이슬기, 2025:116-117)을 위해 깃발 여행의 중요성이 강조하였다. 서울 중심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의 한계, 소외된 감정을 물질의 전달을 통해 연대로 가시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서울 지역 집회의 경험은 더 많이 조명될 필요가 있는데, 한 참여자는 W시 집회에서 아스팔트 도로 한 쪽의 일부를 빌려서 장소가 협소했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경적 등도 위협적이었다고 말했다. Y시 집회에서는 집회 초기에 시위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불안했는데, 기존에 들어서 알던 익숙한 노조 깃발을 보고 다소나마 안심했던 사례도 있었다.

“OO노조”이런 깃발과 연단이 높고 스크린이 크고, 거리에 시위 인파가 많은 걸 보고 안전하다고 느꼈고(중략). 내란의 밤 이후로는 거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잠도 거의 못자고 매일 뉴스를 보던 입장이라서 내 일상이 심하게 파괴되었는데.....그걸 주변 지인과 공유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더욱더 심리적 고립을 느껴서 괴로웠는데, 집회현장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요(참여자 F).

일상에서 고립감을 느꼈던 참여자는 집회에서 펠릭이는 깃발들, 높은 연단, 많은 사람들을 보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함께 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낀다. 깃발의 가시성과 지역을 넘는 연대는 시위참여자가 소수로 느낀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연대의 정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광장에서 깃발과 함께 시위 군중으로 접촉하며 마주치는 신체들, 사물들과 내부-작용하면서 감각되는 정동으로, 고립되어있을 때의 위협감, 절망감이 안도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깃발은 담론적 기호로서뿐 아니라, 제작과 운반에 드는 여러 사람들의 노동과 물성, 기수와 그를 돕는 주변인들의 몸과 노동, 바람과

다른 깃발/기수, 주변 사람들과 거리와 혼드는 박자, 구호와 음악, 응원봉과 이를 혼드는 사람들, 어둠과 가로등, 도심의 거리와 공간들과의 관계 속에 얽히면서 함께함의 정동을 형성한다.

3) 물질의 돌봄성과 몸의 취약성

인간의 몸은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먹고 배설해야 하며, 추위와 더위를 버티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한겨울 추위, 혹한, 바람, 폭설, 일몰 후에도 밤샘연속으로 진행된 탄핵집회에서는 핫팩, 간식, 은박담요, 쓰레기 봉투 등 일상적이고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물질들이 적극적으로 공유되면서 공동체적 정동이 형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광장에서 혼잣말로 배고프다고 한마디 했더니 여기저기에서 누군가 간식을 나누어주었다거나, 많은 택배와 배달로 집회 근처에 먹을거리가 도착하여 이를 분류하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전달한 경험, 자신도 비상약과 간식, 핫팩 등을 여분으로 준비하여 나누는 경험 등을 공유했다.

길거리에서 핫팩이라던가 은박담요나 간식 나눠주는 사람들은 진짜 흔하게 있었고 저도 항상 여분을 들고 다녔어요. 은박담요 한 3개 들고 다니고 간식 한 파우치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상비약 한 파우치 들고 다니고,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누가 아플까봐. 누가 아프다고 하면 자 이거 먹어봐 이라고. 또 구호를 외치다 보니 목청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목에 좋은 것도 들고 다니고요(참여자 A).

시위 한 번 나가면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접이식 수레를 끌고 다녀요. (.....) 한강진 갈 때는 제가 스케치북에다 “장갑, 모자, 방석, 손난로, 발난로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서 올려놨었거든요. (중략) 장갑이나 모자같은 건 다 쓰시고 돌려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또 쓰고 그런 식이에요(최나현 외, 2025: 102).

이와 같이 이번 시위에서는 특정 운동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물건의 나눔을 실천하였다. 이를 보고 80년 광주를 떠올리는 사람

들도 많았다. 광주에서는 주먹밥 등 먹을 것을 만들어 시위대와 나누고, 부족한 혈액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혈하기도 했다(강주비, 2025). 이번 집회에서도 자신이 싸온 간식들을 처음 본 사람들과 나누거나 나눔 받은 경험들이나 주변 상점에 카드 선결제로 참여시민들이 무료로 먹거리나 음료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음식 지원이 아니라 관계와 연결을 매개하는 정치적 실천이다. 광장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도 나눔이 가능해진 낯선 타인과의 상호 돌봄, 물질의 공유로 가능한 공동체적 정동을 만들었다.

난방버스도 돌봄 인프라로 작동했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멀리서 보낸 난방버스는 남태령에서 처음 시작된 연대방식으로, 저체온증 위험자들을 쉬게 하는 의료 공간, 핸드폰 충전 등이 가능하게 했다(김후주, 2025). 또한 인근에 있던 한 수도회는 밤샘시위에 언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을 개방하였다. 영유아를 데리고 집회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이 기부한 키즈버스는 영유아의 기저귀를 갈거나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자를 돌보는 이들도 집회에 참석하고 좀 더 머물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다수의 장소에서 여러 시민들이 함께 인파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주변 화장실 지도를 만들어 SNS에 공유하였고 누구나 참여하여 화장실의 구체적인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었다(정인선, 2024).

한 참여자는 무겁고 복잡한 고민들이 가득했지만, 집회 현장의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청소를 할 때만은 순수하게 기쁨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때한강진의 밤샘 시위 경험 중에서 저한테 뜻깊었던 거는 화장실을 개방해줬던 근처 건물들에 봉사하는 다른 분들이랑 같이 화장실을 청소했던 거거든요. 아니면 그 집회 현장 곳곳에서도 쓰레기를 중간 중간에 처리를 하고 (중략) 집회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에 관심이 있었긴 했는데, 특히 그렇게 밤새고 있고 근처에 화장실도 계속해서 쓰고 그런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을 치우면서 아 진짜 내가 약간 돌봄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중략) 화장실을 치우면서 이 집회를 구성하는

그런 몸의 존재를 느꼈어요. (중략) 사람들이랑 같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휴지를 채우고 그 순간만은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고 다른 잡생각이 들어올 게 없었거든요. 순수하게 기뻐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생리대가 이만큼 쌓여있어 가지고 사이즈도 되게 다양했어요. 그래서 생리대를 못 갖고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생리가 갑자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이거를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무 화장실에나 들어갔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긴 정말 집회의 공간이구나 [생각했어요] (참여자 A).

화장실에 쌓인 생리대와 쌓이고 치워지는 쓰레기는 기존 시위에서 비가시화되기 쉬웠던 몸의 존재와 돌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집회에서는 무대에서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주로 빛나 보일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민주화운동 시위에서 다친 시위대를 돌본 아들, 주먹밥을 지은 이들처럼 비가시화되었지만 취약한 몸들을 돌보는 사람들과 쓰레기를 치우고 생존과 버티기 위한 물질들을 준비하는 노동은 매우 핵심적이다. 이는 단지 여성과 돌봄을 연관시키는 기존의 여성성을 재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행위와 가치야말로 모두에게 필요한 시민성의 기본임을 보여준다. 즉 연대란 동일한 주장이나 정체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함께 버티게 하는 서로 돕는 실천이다.

또한 광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키세스단’은 한 강진에서 밤샘 시위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시위대를 감싼 은박담요와 흰 눈과의 얽힘이다. 은박담요는 원래 1967년 NASA에서 개발한 우주담요 (Space Blanket)로 우주의 혹독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도록 고안된 인공물이었는데, 이후 스포츠, 재난 구조, 캠핑, 군사, 의료 분야 등에서도 사용되었다.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원리로 최대 90% 이상의 체온을 반사하여 유지하고 반짝임은 구조신호로 활용되도록 고안되었다.⁹⁾ 이 물

9) 물리학자 김상욱은 이러한 맥락에서 키세스단을 ‘우주전사’로 불렀다(김상욱, 2025).

질이 시위 현장에서 폭설과 혹한을 견딜 수 있는 물질로 전용되면서 눈, 추위, 체온, 과학, 정치의 얽힘을 드러낸다. 같은 기술도 정치적 맥락의 재배치로 다른 의미와 정동을 형성한다. 인간의 의도만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싸락눈과 기온이 기술과 취약한 몸들과 함께 새로운 복합적 얽힘을 만들어낸다. 추운 겨울의 날씨와 아스팔트, 하얀 눈, 은박담요는 추위 속에서 역설적 따뜻함의 정동을 전달하였고 민주주의의 간절함을 느끼게 하여 많은 언론에서 조명하였다. 이와 같이 은박담요와 같은 물질들은 원래의 설계의도를 벗어나 다른 관계와 얽히면서 창조적인 다른 얽힘을 만들었다.

집회가 끝난 후 쓰레기들이 많이 생산되거나 정리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로 쓰레기봉투를 나눔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시위대도 있었고, 사용한 은박담요를 다음에 오는 이들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떠날 때 도로 한쪽 바리케이드에 묶어두고 가기도 하였다. 응원봉 역시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사용하던 것을 빌리거나, 앞서 언급한대로 꼭 응원봉이 아니라도 집에 있는 빛나는 물건이나 소중한 물건을 갖고 나오면 된다고 강조하는 경우 등 쓰레기의 생산을 우려하고 최대한 줄이려는 목소리들이 있었다(SBS 뉴스, 2024).

냉난방이 잘 되는 실내나 비교적 쉽게 먹거리와 전기를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몸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곤 한다. 하지만 차가운 아스팔트와 바람에 노출된 광장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표면화된다. 현장을 지킨 옆 사람의 체온과 공유된 물질들은 저항의 지속성과 공동체적 정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 고립된 개인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인간상과 달리, 취약성과 상호의존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는 '관계적 존재론'은 주변화된 위치에 처했을 때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약자의 인식론을 옹호한다.

1. 6.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7bLEEGqS6/> (최종접속일: 2025. 10. 31.)

4)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의 연결성과 ‘안전’

스마트폰은 응원봉이 없을 때 손전등 기능으로 불을 밝히고 피켓 대응 등 다양하게 사용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집회 현장의 이미지, 영상 등은 디지털 기술과 연결되어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다. 이는 연대와 안전이라는 이슈와 깊이 연관되었다. 현장의 즐겁고 아름다운 빛 뿐 아니라 긴급하기도 한 모습들이 담긴 사진과 영상의 공유는 달려나가 ‘참여하고 싶은 광장’을 만들어갔고(신지현, 2025), 먼 곳으로부터의 연대도 가능하게 했다. 해외 체류자나, 공항장에 등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돌볼 가족이 있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광장에 나오기 힘든 경우 앞서 언급한 난방버스를 보내거나 먹거리를 선결제하여 참여자들을 돕고 온라인 상황 공유로 돕는 등의 활동으로 연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과의 얽힘은 현장에 있지 못한 이들도 감정적 연결과 동참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치적 행위자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자체가 안전함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어떤 관계 속에 얽히는가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낳는다.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위해 실시간 중계를 할 때, 카메라는 방패이자 무기였지만, 다른 관계 속에서 반대로 신분 노출이나 채증의 우려도 낳았다. 한 참여자는 실시간 녹화, 카메라 촬영이 너무 많은 나머지, 현장에는 ‘근접 촬영 금지’ 배지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실시간성이 높은 SNS가 트위터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은 연대가 트위터를 통해서 일어났었잖아요. (중략)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항상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이거는 강남역 시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지만, 2차 남태령 때 아침에 끝나고 가는데, 역 가는 길에,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양 옆에서 정말 온갖 별별 욕을 다 해가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서, 가는 사람들을 찍고 그러고 시비 걸고 하고 있더라구요(참여자 B).

이와 같이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이 '안전성'만 보장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욕설과 조롱을 하며 사진을 찍는 이들이 많았던 동덕여대 집회, 혜화역 시위 등 여성들이 대부분인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경험도 이와 이어진다.

서울의 큰 규모의 집회와 달리, 소규모인 지역 집회일수록 신분 노출 위험은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다. 포항의 한 집회에서는 이삼십대 여성들이 비슷한 이유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발언했다(정보라, 2025: 67). 사회적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 사회적 조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의제 외에 참여자들이 사회변화를 위해 말하고자 했던 다른 의제들이 쉽게 말해지기 어려웠던 현실도 시사한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집회 초반에는 여성혐오적, 장애차별적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점차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¹⁰⁾이 온라인과 매 집회에서 공유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광장에서 나타났던 성별, 성적지향, 장애, 연령, 국적 등에 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박이현, 2025: 354).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경찰이 없는 공간에서도 스스로 질서유지 자원봉사를 하였고, 사람이 많거나 위험해보일 때는 함께 '천천히' 구호를 외치며 자발적으로 질서 유지의 구성원이 되었다.

따라서 여성과 소수자 등이 대규모 광장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맥락에 대해 '안전해서 나올 수 있었다'는 설명은 한계가 있다. 여성과 소수자의 적극적 참여는 '안전해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나간 안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광장에서는 계엄을 시도한 세력이 '무슨 짓을 할지 모

10) 「윤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안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2024. 12. 18.)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ivilnet.net/act/?bmode=view&idx=134767724>.

른다는 공포와 보복성 체포, 군사적 행위의 우려, 극우 단체와 그에 동조하는 이들의 반대시위, 혐오적 폭언과 조롱, 폭력 시위 등 복잡한 위험 요소가 상존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광장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참여자, 물질의 얽힘을 통한 상호적 돌봄과 연대를 통해 ‘안전함’을 창출해나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위협이 되었던 디지털 기술이 역설적으로 이러한 안전함의 창출에 기여하기도 했고, 때로는 위협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물리적 몸이 다른 얽힘 속에서는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함의 요소로 다가오기도 했다.

6. 나가며

살펴본 바와 같이 광장의 물질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정동적 정치의 핵심적 행위자로서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다른 감각들을 만들어냈다. 응원봉은 빛과 소수자성과 얽혀 그간 비가시화되어왔던 여성과 소수자들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응원봉의 다양한 빛깔과 흔들림, 참여자들의 구호, 노래와 스피커의 울림, 몸과 바람과 연결된 깃발들은 몸과 연결되며 함께 하고 있다는 감각을 만들었다. 또한 한겨울 추위와 바람, 때로는 눈이 내리는 현장에서의 시위는 몸의 취약성을 돌보는 물질들을 통해 돌봄과 연대의 시민성을 형성했다.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폰은 때로는 위협적인 도구였으나, 폭력을 방어하며 참여하고 싶은 광장을 알리고 먼 곳으로부터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광장은 사람과 사물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관계적 행위들의 장으로 물질적-담론적 얽힘의 힘을 드러내며, 시간-공간-물질이 얽혀 생성되는 세계, 물질, 기억 자체이다. 이미 존재하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주치고 부딪치는 신체들과 물질들, 민주화운동과 페미니즘/퀴어 광장의 기억, 폭력, 희망 등이 관계 속에서 내부-작용하여 물질화된다.

물질의 행위성을 강조하는 일이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환원론이나 기술결정론으로 오해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물질성은 그 본래 특성이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동적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유동적 실재이다. 광장의 정동은 인간의 의도만이 아니라 물질-담론적 얽힘과 함께 발생한다. 참여자들과 물질들은 집회 현장 이전에 이미 완성된 주체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정치적 주체로 되어갔다. 정동적 물질의 정치가 만들어낸 새로운 광장 시민성은 고립된 인간 개체가 아닌, 얽히고 연결된 존재들 사이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연대의 정동을 구성하였다.

기존 신유물론의 논의가 주로 이론적 논의에 집중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회운동에서의 함의를 밝히며, 이를 통해 물질을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 관계성에 주목한 의의가 있다. 신유물론으로 볼 때, 겉보기엔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으로 보이는 물질들과 몸들이 얽히면서 생산적인 영향을 주는 연결성과 가능성들이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주체를 고립된 인간 개체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넘어, 다양한 요소들이 내부 작용하는 관계적 존재론에 기반한 연대의 시민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연대의 시민성'은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관계적 상호의존의 존재론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시민성이다. 이를 통해 혼자서는 불가능한 즐거움, 긴장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함', 서로에게 빛을 지며 돌보고 연결되는 정동의 형성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언어와 제도 뿐 아니라 몸, 정동, 사물, 환경이 함께 참여하는 관계적 효과이다.

각자도생 담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연대와 연결의 감각과 실천들은 어떻게 가능한가? 고립된 개인의 이익을 기계적으로 재단하고 강조하는 생존경쟁 담론에 도전하고 관계적 존재론과 연대의 시민성을 확산하는 일이 오늘날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관계적 존재론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고립되어 따로 떨어져 살 수 없다는 연결망 속 상호의존의 관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탄핵집회에서 드러난 다양한 목소리들은 과연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진 현재 가시화되고 있을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탄핵은 이루어졌지만 '사회대개혁'으로 주장되었던 의제들이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감을 힘주어 이야기했다. 광장에서 드러난 다양한 목소리들은 단지 거대 정당의 정권교체 이슈로만 흡수되지 않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탄핵집회 이후에도 장애인 이동권, 차별금지법, 해고노동자, 기후위기, 팔레스타인 연대 등 중요하지만 소외된 운동에 계속 연대하고 있었고, 광장 이후 변화하지 않은 현재 상황의 답답함을 많이 이야기했다. 후속 연구에서 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광장의 모든 물질들과 참여자들의 관계들을 고찰하지는 못한 한계도 분명하다. 앞으로 더 많은 인간, 비인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면서 연대의 시민성을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문민서 · 송소연 · 조용환. 2025. 『내란의 밤, 시민의 기록』. 서울: 진실의힘.
- 강유정 외. 2025. 『다시 만날 세계에서: 내란 사태에 맞서고 사유하는 광장의 여성들』. 서울: 안온북스.
- 권명아. 2016. “비교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정동 연구의 사회정치적 의제: ‘여자 때’ 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 『여성문학연구』 39: 7-38.
- 김영옥. 2009.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촛불집회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아시아여성연구』 48(2): 7-34.
- 김은성. 2022. 『감각과 사물: 한국 사회를 읽는 새로운 코드』. 서울: 갈무리.
- 김주미. 2025. “촛불집회에 나타난 K-pop 아이돌 팬덤의 증여행위: 여초 팬덤 커뮤니티를 사례로.” 『민주주의와 인권』 25(2): 117-154.
- 김환석. 2018.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유물론.” 『지식의 지평』 25: 81-89.
- 김후주. 2025. “남태령: 꺼지지 않을 연대의 불꽃.” 강유정 외(편). 『다시 만날 세계에서』. 서울: 안온북스.
- 마수미, 브라이언. 2018. 『정동정치』. 조성훈(역). 서울: 갈무리.
- 박상은. 2025. “도랑, 강, 바다 그리고 비—12·3 내란의 ‘작은 광장’들과 몸짓, 말, 소리, 이미지 실천.” 『역사비평』 152: 400-440.
- 박이현. 2025. “평등하고 역동적인 광장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매개자로서 활동가.” 정원옥 외(편). 『광장의 문화정치』. 서울: 동연.
- 박지하. 2026. 『윤석열 퇴진 광장 참여자 경험 연구: ‘취약한’ 정체성들을 드러낸 발언자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보경. 2023. 『휘말린 날들: HIV, 감염 그리고 질병과 함께 미래 짓기』. 서울: 반비.
- 소영현. 2022. 『광장과 젠더』. 서울: 갈무리.
- 손희정. 2017. 『페미니즘 리부트: 혐오의 시대를 뚫고 나온 목소리들』. 서울: 나무연필.
- 신지현. 2025. “우리의 작은 빛이 당신에게 닿을 때까지.” 『이토록 평범한 내가 광장의 빛을 만들 때까지』. 서울: 톨링다이스.
- 신진옥 · 이재정 · 양승훈 · 이승윤. 2025.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 파주: 문화동네.
- 아메드, 사라. 2023. 『감정의 문화정치』. 파주: 오월의봄.
- 오세연. 2025. “우리가 이긴다.” 강유정 외(편). 『다시 만날 세계에서』. 서울: 안온북스.
- 유현미 · 김이선 · 김정환 · 장진범 · 박상은. 2025. “광장에서 만난 세계—윤석열 퇴진 집회 시민발언문 분석.” 『경제와 사회』 146: 153-193.

- 이슬기. 2025. 『광장을 바꾼 청년 여성들의 정치력: 우리는 우리가 놀랍지 않다』. 파주: 틈새의시간.
- 임태훈. 2025. “12·3 이후의 청각 정치학-광장의 소리와 이론의 탐색” 『대중서사연구』 31(2): 463-496.
- 장은애. 2023. “다중의 광장을 위한 모색.” 『여성문학연구』 59: 242-254.
- 정보라. 2025. “연대하는 우리들은 강력하다.” 강유정 외(편). 『다시 만날 세계에서』. 서울: 안온북스.
- 정원옥 외. 2025. 『광장의 문화정치』. 서울: 동연.
- 조소연·정성조·이나영. 2025. “팬덤과 광장의 조우.” 『미디어, 젠더&문화』 40(3): 115-155.
- 최나현·양소영·김세희. 2025. 『백날 지워봐라, 우리가 사라지나: 광장에 선 딸들의 이야기』. 파주: 오월의봄.
- 최지향·전현지·백지연. 2025. “2030 여성은 왜 광장으로 나갔으며, 광장은 이들을 어떻게 바꾸었나?: 대통령탄핵촉구집회 여성 참가자의 참여 동기, 사회자본 및 연대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33(3): 5-54.
- 한우리·허철. 2010. “보여주기의 문화정치학: 촛불집회, 퍼포먼스, 수행적 정체성” 『평화연구』 18(2): 41-83.
- 홍보람·한우리. 2025. “말벌들, 기수들, 그리고 고공의 노동자들: 물질성/신체성의 쿼어정치학” 『여/성 이론』 52: 18-39.
- 희주·일석·구구. 2025. 『케이팝 응원봉 걸스- 광장에서 만난 팬걸에게 묻다』. 파주: 클레이하우스.

- Ahmed, Sara. 2004.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Arendt, Hanna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rad, Karen.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Barad, Karen. 2012. “On Touching—The Inhuman That Therefore I Am,”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23(3): 206 - 223.
- Barad, Karen. 2023. “Nuclear Hauntings & Memory Fields, For the Time-Being(s).” *Apocalyptic* 2(1): 24 - 39.
- Bennett, Jane. 2010.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Coleman, Rebecca. 2019. “Glitter, Visibility and a Politics of Sparkles: Looking at the Camp in Affective Culture.” *Body & Society* 25(4): 79 - 104.
- Esmoris, M. F. B. and Ohanian, M. J. 2022. “Material Protests: A Contribution from the

- Cultural Biography of Things.” *Ethnologia Polona* 43: 179 - 182.
- Habermas, Jürgen,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IT Press.
- Kwon, Insook, 2005. “How Identities and Movement Cultures Became Deeply Saturated with Militarism: Lessons from the Pro-Democracy Movement of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1(2): 7-40.
- Latour, Bruno,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lcom, N. L., Martindale, A. K., Paulins, V. A. et al, 2020. “Unifying Yet Dividing: Voices of Pussyhat Maker - Wearers Who Participated in the 2017 Women’s Marches.” *Fashion and Textiles* 7: 32.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 Michèle, 1991. *Hello, Central? Gender, Technology, and Culture in the Formation of Telephone Systems*.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genhofer, J. M. and da Silva, F. C. 2023. “Politics with Objects? On the Affective Materiality of Contentious Politics.” *Acta Sociologica* 67(1): 6 - 19.
- 강주비, 2025. “금남로주먹밥이 카드 선결제로…되살아난 오월 공동체.” <무등일보>. 2025.4.30. <https://www.mdilbo.com/detail/4EoQ4t/742159> [검색일: 2026.4.19.]
- 김세원, 2024. “케이팝의 정치화?… 팬덤은 항상 정치적 주체였다.” <여성신문>. 2024. 12.31.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452> [검색일: 2026.1.30.]
- 이유진, 2024. “소중한 것을 지키려 ‘가장 소중한 빛’ 들었다.” <경향신문>. 2024.12.14.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40600001#ENT> [검색일: 2026.1.30.]
- 정인선, 2024. “여행비로 ‘키즈버스’, 화장실 지도 개발…‘탄핵’ 시민들의 연대.” <한겨레>. 2024.12.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555.html [검색일: 2026.1.30.]
- SBS 뉴스, 2024. “집회 뒤 쓰레기 하나 없어…질서 있는 퇴장 빛났다.” <SBS뉴스>. 2024. 12.1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3284 [검색일: 2026.1.30.]
- 하현중, 2018. “1987년 그곳에 여성들이 있었다.” <SBS뉴스>. 2018.1.2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82519 [검색일: 2025.10.31.]

Abstract

Relational Materiality in the Public Square and Solidarity-Based Citizenship – The Materials of the “Light Stick Protests”

Jeong, Yeonbo
(Sungkonghoe University)

The materials present at protest sites function not merely as tools or symbols but as significant actors that shape social meanings of the movement while reinforcing the affect of solidarity. The impeachment rallies held from late 2024 to early 2025 have been referred to as “light stick protests” or a “revolution of light.” In this study, objects such as light sticks – highly visible in these rallies – are understood not as passive objects but as active participants. The public square is not simply a physical site of gathering, but a world constituted through the entanglement of time, space, and materiality – it is itself matter and memory. Rather than people assembling in a pre-existing empty space, the square is materialized through relational dynamics: the swaying of light sticks, the encounter of light and darkness, flags fluttering in the wind, the cold asphalt ground, the warmth of hand warmers and thermal blankets, the connectivity of smartphones and digital technologies, the vibrations of chants and music, bodies meeting and colliding, and the memories of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feminist/queer protests, along with violence and hope. Participants and materials in the square are not pre-existing transcendental subjects or entities with essential properties; rather, they become resistant protesters and resistant subjects through intra-actions among diverse human and nonhuman relations within the protest site. Grounded in a relational ontology that moves beyond viewing democratic subjects as isolated individuals, this study emphasizes “relational materiality” and “solidarity-based citizenship.” In doing so, it attends to the

formation of affect – such as joys impossible alone, a collectively produced sense of safety amid tension, and relational bonds of care, indebtedness, and connection – thereby understanding democracy as a complex process shaped by the participation and influence of multiple beings.

Key words: Lightstick Protest, Relational Materiality, Solidarity-Based Citizenship, Affect, Public Square

- 투 고 일 : 2026년 3월 18일
- 최초심사일 : 2026년 4월 6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4월 21일